

팀 구성

팀장: 알리벡

팀원: 옹호진, 부티하이린

발표 시간: 약 20 분 (1 인당 6~7 분)

알리벡 — 서론 및 AI 기술의 발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열정빛팀입니다.

저는 팀장 알리벡입니다.

오늘 저희는 “AI 와 일자리”,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은 1956 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계산과 패턴 인식 정도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만들며 스스로 학습하는 생성형 AI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ChatGPT, Midjourney, Claude, Gemini 같은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AI 는 이제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며, 인간의 노동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과정, 일자리 구조의 변화, 경제적·사회적 영향,

AI 시대의 인간 역할, 종교적 관점에서 본 노동,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AI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은 크게 세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자동화 시대입니다.

1990 년대부터 2000 년대 초까지는 공장 생산라인과 데이터 입력 등 사람이 반복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대입니다.

2010 년대에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AI 가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의 신용평가, 의료의 질병 진단, 법률 문서 작성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생성형 AI 시대입니다.

2020년대 이후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등장하면서 인간 수준의 언어 생성과 이미지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AI는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협업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Stanford AI Index Report 2024

영호진 — 일자리 구조의 변화 및 사회적 영향

안녕하세요, 저는 영호진입니다.

저는 AI가 노동시장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2023)에 따르면

국내 전체 직업의 62%가 자동화 위험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단순 사무직, 콜센터, 은행 창구, 운전 및 배달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AI를 개발하고 관리하며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트레이너, 데이터 분석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전문가 같은 직종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2023)은

“AI는 2030년까지 8,30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지만, 동시에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직무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PwC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의 생산성은 평균 15~25%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은 더 성장하지만 저임금 단순 노동자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의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에 맞춰 재교육(Re-skilling)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청년층의 취업난, 중장년층의 재취업 부족, 그리고 기술 변화 속도의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 KDI,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3

부티하이린 — 인간의 역할, 종교적 관점, 결론

안녕하세요, 저는 부티하이린입니다.

저는 AI 시대에서의 인간의 역할, 종교적 관점, 그리고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빠르고 정확하지만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거나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MIT의 에릭 브린올프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는 빠르지만, 인간은 의미를 이해한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다움, 즉 창의성,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입니다.

UNESCO(2024)는

AI 시대의 교육은 기술보다 윤리와 인간 중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와 가톨릭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팔정도의 정명을 통해

기술이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은

노동은 신의 뜻을 실천하는 행위라 하며,

AI 또한 인간의 책임 아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힌두교는 다르마, 즉 각자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사회의 조화라고 강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2023)은 말씀하셨습니다.

“AI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즉,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AI는 인간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는 일자리를 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세계경제포럼(2024)은

AI 시대의 성공은 인간 중심적 접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는 도구이며, 그 도구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결국 AI 는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다시 묻는 존재입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면
AI 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2024). Employment Outlook.
World Economic Forum (2023, 2024). Future of Jobs Report.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3). Generative AI and the Future of Work.
한국고용정보원 (2023).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2022). AI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연구.
UNESCO (2024).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프란치스코 교황 (2023).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담화.